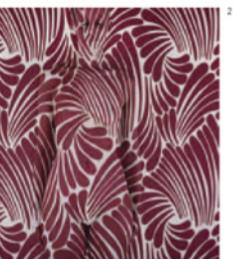


카무플라주(Camouflage)



1
원과 정사각형 벽지
(Wallpaper Circles and Squares)
Florence Broadhurst
Wallpaper courtesy of
Signature Prints

2
승마 벽지
(Wallpaper Cleft Fingers)
Florence Broadhurst
Wallpaper courtesy of
Signature Prints

3
음嗟의 벽지
(Wallpaper Ocelli)
Florence Broadhurst
Wallpaper courtesy of
Signature Prints

4
세계체육대회 벽지
(World Congress Professional Body Painting Championship)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후 어여 전시
활동을 펼치 시작했다. 엠마는 60~70년대의 자연주의적
배경과 그림 외에 스스로의 몸에 페인팅을 한 다음 모델
발루스(Ferulah)로부터 깃털을 차운 카무플라주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한, 엠마의 원만한 유즈는
비로 서정적인 벽지와 작품 디자이너였던 플로렌스
브로드호스트(Florence Broadhurst)의 작품

브로드호스트는 동양적 요소의 유품과 모던아트 양식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했다. 호주 출신인 그녀의 작품을 보면
언뜻 영국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다. 꽃무늬와 둥울
또는 대나무를 결합시킨 상동감 있는 티포리지 특징이다.
엠마는 그녀의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 시그니처 프린스
(Signature Prints)사로부터 독점권을 부여 받았다.
벽지 컬렉션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작업하고 그
후에 리터디션 디션 시진 진이 회사를 접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벽지 작업을 터 19시간이나 걸렸다. 첫
시도였다는 점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다. 벽지 컬렉션은
시리즈로 계속 작업했고, 작업 과정에서 호주에 사는
동물들을 작품에 도입했다. 최근에는 아르 누보(Art
Nouveau)의 양강을 받아 만다라(Mandala)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3

4
열대자연의 나비 벽지
(Wallpaper Tropical Butterflies)
Florence Broadhurst
Wallpaper courtesy of
Signature Prints

5
황갈색의
프로그로스 벽지
(Wallpaper Tawny Frogmouth)
Florence Broadhurst
Wallpaper courtesy of
Signature Prints

월페이퍼 컬렉션 (Wallpaper Collection)

1993년 카드로 만든 집(House of Cards)에서는
주인공의 말이 벽에 걸리기 되고 서로하는 과정
중 소나기 방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데, 퍼인팅
도구로 그 자신의 온몸을 주변과 같은 칼러로 칠해
감쪽같이 위장한 성공적인 것이다. 현실에서도
위장을 주기 위해 플라주 개념을 응용한 비디 이에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 출신 예술가 엠마(Emma Hack).
그녀는 아이들을 배경으로 페인팅 하는 것을 티작으로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디 디자이너,
비주얼 아티스트 등으로 20년간 작업해왔다. 2001년
총공연에 열린 세계디자인페어 청년안심대(CDESCO:
World Congress Professional World Body Painting
Championship)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후 어여 전시
활동을 펼치 시작했다. 엠마는 60~70년대의 자연주의적
배경과 그림 외에 스스로의 몸에 페인팅을 한 다음 모델
발루스(Ferulah)로부터 깃털을 차운 카무플라주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한, 엠마의 원만한 유즈는
비로 서정적인 벽지와 작품 디자이너였던 플로렌스
브로드호스트(Florence Broadhurst)의 작품

브로드호스트는 동양적 요소의 유품과 모던아트 양식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했다. 호주 출신인 그녀의 작품을 보면
언뜻 영국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다. 꽃무늬와 둥울
또는 대나무를 결합시킨 상동감 있는 티포리지 특징이다.
엠마는 그녀의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 시그니처 프린스
(Signature Prints)사로부터 독점권을 부여 받았다.
벽지 컬렉션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작업하고 그
후에 리터디션 디션 시진 진이 회사를 접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벽지 작업을 터 19시간이나 걸렸다. 첫
시도였다는 점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다. 벽지 컬렉션은
시리즈로 계속 작업했고, 작업 과정에서 호주에 사는
동물들을 작품에 도입했다. 최근에는 아르 누보(Art
Nouveau)의 양강을 받아 만다라(Mandala)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